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이상지질혈증

조선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 현 리

Dyslipid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Hyun Lee Kim

Chosun university hospital, Internal medicine, Division of Nephrology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발생의 증가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해 혈압조절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치료지침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만성콩팥병 1-4단계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00 mg/dL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175 mg/dL 이상이면 치료적 생활개선 및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고, 5단계의 만성콩팥병은 LDL콜레스테롤이 100 mg/dL 이상이면 100 mg/dL 이하로 내리도록 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100 mg/dL 이하이더라도 공복 중성지방이 200 mg/dL 이상이고, non-LDL 콜레스테롤이 130 mg/dL 이상이면 non-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130 mg/dL 미만으로 낮출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의 주치료제인 statin은 주로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상관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4D 연구에서는 atorvastatin 20 mg/day를 사용하여 당뇨병을 가진 혈액투석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의 억제효과를 보았으나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효과는 얻지 못하였다. 그 후 발표된 AURORA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rosuvastatin 10 mg/day를 투여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4D 연구가 마찬가지로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켰으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SHARP 연구는 simvastatin/ezetimibe 20/10 mg/day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없는 투석전단계의 만성콩팥병과 투석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총 환자군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효과를 보였으나, 투석전단계와 투석단계로 구분하여 비교시 투석전단계의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simvastatin/ezetimibe 20/10 mg/day를 투여 시 투석환자들에 비해 심혈관계질환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투석전단계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조기에 statin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는 주로 K/DOQI 지침을 따라 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6년 대한신장학회 협연사업보고에서 비당뇨병성 만성콩팥병 환자의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1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보고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상지질혈증의 기준과 치료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